

對日補償청구운동 확산

형우소 미결감에 1년간
됐다가 석방된 충남舒川
金秉圭씨(72)가 이를
출신 사형수들의 마지막

下

누명쓴 戰犯

말이 45년간이나 소중
박, 엄격한 사형수들의
은 심정을 오늘에 생
전한다。

나오는 비스킷포장을
『홀배식당』에게 건네
주들의 절필(絶筆)을
게했다. 어떻게든 고
아가 유족들에게 글
그들의 마지막을 전
했다』고 당시의 심
했다.

우유해가 이국땅을
지글지글 돌돌돌의 도
天安 만향의 동산에
千光巖의 絶筆은 다
나. 「싱가포르」 英軍
제 6법정에서 사형선

日도 韓도 외면 "우주迷兒40년"

언, 46년 7월 23일. 고려인민
공화국, 永遠만세. 청춘 27세

그러나 52년 7월 30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형』 과해질
때 일본국민이었다면 조약발

◇ 처형당하기 직전에 낚인 화북인 전범들의 절필.
어뢰를 다량에 창고했다수 전범。

A collage of historical photographs and handwritten notes. The top left shows a building with a clock tower, labeled "CITY OF SINGAPORE 1945". The top right shows a building with a clock tower, labeled "CITY OF SINGAPORE 1945". The bottom left shows a building with a clock tower, labeled "CITY OF SINGAPORE 1945". The bottom right shows a building with a clock tower, labeled "CITY OF SINGAPORE 1945". Handwritten notes in Korean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collage.

한편, 길은 포로간사(西園)로 끌려갔다가 전범이란 오욕만은 면하고 천안고을에 귀국한 사람들은 천록단체인 토요회(회장 金東根)를 만들어서도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가운데 全福根씨는 자신과 같은 남방포로간사원 출신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한 '절간'라는 책을 지난 연말 펴냈다.

토요회 회원들 가운데도 장기간을 연두만아 오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몇사람 포함돼 있지만 동진회 회원들처럼 보살부장을 할 생각은 못하고 있다. 차가 멀리는 과거사를 떠올리기도 싫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돌봐왔던 동진회사람들의 투쟁을 인정함으로써 잊으면서 속삭이를 두세우고 일본들의 부끄러움을 무시하고 있다.

【東京Ⅱ崔奎植기자】

180 - 11020 E

최근 法的 투쟁 다시 준비

悲命 千光麟
전주 고신자였던 張水業은 「남양주속」 3년에 사형언도를 당했는데, 은혜모를 친구와 화란포로때문에 이세상 떠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들을 조금도惡說치않노라. 하나 님께서 사람을 주창하셨는데 전제를發起한 일분구에 중군한것이 죄라고 생각한다. 소국이 독립하는데야 무슨願이 또 있을까? 라고 적었다. 참기혈투소에 있던 한류이 전범을형 50년과 51년 사이

후의 국조신인인 정몽주를
치지않았다』고 그의 친구
를 기렸다. 일본정부를 신
실행(신정)보상을 해줄수 없
다는 논의와 정판대의 논의
로 성립조차 거부한것은
의정인 박정웅의 대표적 사
례이다. 한편 전법회의 57
년 4월 金鎗植체를 끝으로
두출소했지만 이들의 앞길
은 막막하기만 했다.

를 상대로도 '일본정부는 ▲우
리를 강제징용하고 ▲특히 2
년간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종전후 연합국에 구금되
게 했으며 ▲연합국과의 조약
체결시 제3국인의 인권을
전혀 고집치 않았' 책임을 지
라"고 주장하며 사형자 1명
당유가족에 5백만엔, 복역
자에는 복역일수 1일당 5백
엔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발뺌으로 일관했다.
강제징벌시설였던 기시노부

싸기 두어일었다. 한쪽 전투부
시 그 동은 『義田』이라한대
은 45년 8월 15일이전의 사
이므로 전투부에는 전투부제
제외된다』가 반대를 보였
다. 전투부제 자신을 표현하
로 「우애와 평정」은 전제」로
지내오면서나 그후인 전투부
한 30여명의 만행에다가이
로 승화해왔다.

同進會의원들이 한간 자간
57년 일본 전투부를 상대로 일
오천원 보살아로 투쟁을 재개
하리다. 승리가있다.

석방후 비참한 생활... 정신병에自殺까지

57년 보상요구에 日정부 겨우 5만엔뿐

최근 法的 투쟁 다시 준비

한편 같은 포로감시원으로
출려갔다가 전범이란 오욕만